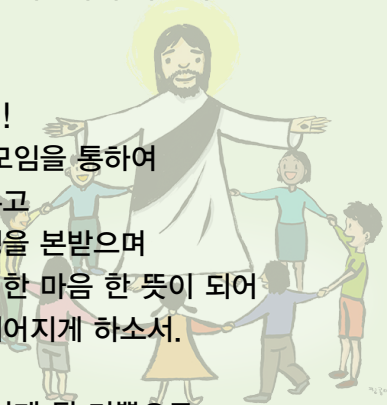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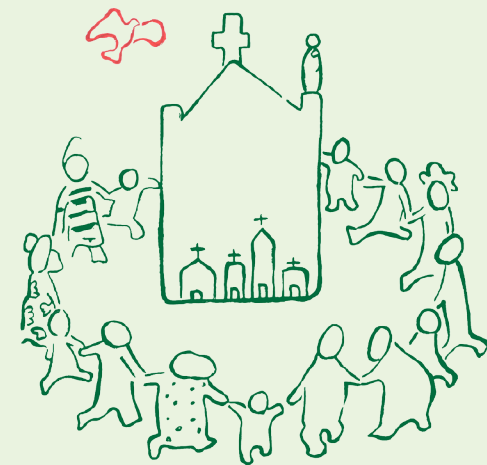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 세례 축일(1월 13일)

세례를 받으시다.

(루카 3,15-16.21-22)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 주님,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5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

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세례, 바오로딸 콘텐츠, 바오로딸 엄혜진 헬레나 수녀-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루카 3,16)

세례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나쁨의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봅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 22)

하느님의 마음에 드실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결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요새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며?” “그렇게 됐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서 잘 알겠네?” “글쎄,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묻겠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친구를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다네. 뭐냐 하면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고 있다는 사실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나는 주정뱅이요 빚도 많았고, 온 집안 식구가 나를 무서워했네.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에 더 화를 내며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날 반가워하네. 그리고 몰랐는데 오래 전부터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 사실을 믿으니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 틈에 서서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머리를 숙이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의 참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세례는 단지 교리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며 살겠다는 결심이고 실천임을 잊지 맙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주일(1월 20일) 카나의 혼인잔치 (요한 2,1-11)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46장 “우리는 주의 사랑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당신 사랑의 말씀을 귀여겨듣게 하소서.
-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

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7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브라디 바르트, 1989, 스위스(카나의 혼인잔치)-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요한 2,3)

타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여 도와준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에게 포도주는 귀한 것이었다. 포도주는 삶을 신명나게 하는 즐거움의 상징이었다.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자리인 결혼 축하연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필수품이다. ... 만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동이 나면 신랑은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하고 신부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죄값으로 심한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카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 중에 축하연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바닥난 것이다. ... 성모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잔치를 맡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다. 대신 조용히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신혼부부의 곤란한 상황을 알렸다. 성모님의 이 태도는 모범적일 뿐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다. ... 카나 혼인잔치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 사이에서 생긴다면 우리는 문제의 소지를 가리기에 바쁠 것이다. 애초 신랑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것이 문제인지, 손님들이 과도하게 포도주를 마셔 댄 것이 문제인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것이 문제인지 등을 따지며 책임자를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시끄러워질 뿐이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모님처럼 섬세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성모님은 책임의 소지를 밝히려고 하기 보다는 신뢰를 갖고 예수님께 다

가가 조용히 신혼부부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청했다. 성모님의 이러한 태도로 흥이 깨질 수도 있었던 잔치집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모님 같은 섬세한 마음과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송봉모 신부,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p.167-173 발췌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46장 “우리는 주의 사랑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진교본당 2구역 3반 반장 최재종 베드로—

진교본당은 산 좋고 물 맑은 하동군 진교라는 작은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해대교를 따라 가다보면 진교 외곽도로 오른편 작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예쁘고 아름다운 진교성당이 보입니다.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건축대상을 받기도 한 하느님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1963년 진교 하평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정집 아랫방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은 1990년 3월 27일 장민현 신부님을 초대 신부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본당이라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고 일부는 상업에 종사합니다. 전입교우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느 시골 본당이 그렇듯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주일미사 신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걱정입니다. 진교본당에는 3개 공소와 10개의 소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모임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한동안 침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이성현 신부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다시 재정비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당이라 어느 집 수저가 몇 개인지 알 정도지만 반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더욱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주일 미사 후 반장 모임이 있고,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반원 집을 돌면서 모임을 가집니다. 올해 부임하신 이재열 신부님께서도 저녁미사가 없는 날에는 꼭 반모임에 함께하시어 함께 기도드리고

격려해줍니다. 처음엔 복음 나누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서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어 모두 반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할 정도입니다. 모임이 있을 때면 외딴교우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쉬는 교우와 환우를 찾아가 위로하며 특히 신자들 중 장례가 나면 모두 한마음으로 찾아가 기도합니다. 9가구 12명 정도로 구성된 저희 2구역 3반 반원들은 1년에 몇 차례씩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불며, 색소폰 소리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과 정성이 하느님께 가닿길 청하며, 그분 은총과 도우심이 진교본당 모든 소공동체에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복음 나누기란 무엇인가요?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나누기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와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에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춘 지도자나 능력 있는 리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나누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며 그것이 다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고 진솔하게 나누면 됩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2티모 3,16-17)”

- 「소공동체 봉사자교육 1단계」(수원교구 복음화국 소공동체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사목국 일정

■ 마산교구 신양대학 제26기 모집(추가모집) ■

마산교구에서는 가톨릭 신학과 철학, 영성을 바탕으로 평신도 신앙인의 자질 함양과 세상의 복음화 및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신양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양대학 제26기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세상의 복음화와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평신도
- 지원자격 :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 (만 65세 이하)
- 교육기간 : 2년 과정(1월과 8월은 방학)
매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주일 오후 4시(1박2일)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교 과 목 :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회론, 영성신학, 윤리신학, 그리스도론, 성령론·마리아론, 성사와 전례, 교회법, 교회사, 사회교리, 철학
- 등 록 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0,000, 4인실: 420,000)
- 모집인원 : 60명(선착순)
- 졸업특혜 : 신양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지원방법 : 소정의 입학 양식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입학양식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 지원마감 : **2019년 1월 18일(금)까지**
- 보내실곳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 기타문의 : 사목국 055)249-7021~3